

##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◎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(5개월)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,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.

### ❖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

- ◎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 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, 위험농가 대상 사육제한(휴지기)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.

- (철새 예찰) 전국 철새도래지(96개소)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·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% 확대(22천건→23, 10월~'20.3월)한다.

- 아울러, 민관 합동\* 철새 정보망을 구축하여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,

\* 농식품부, 검역본부, 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, 국립생물자원관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- '철새정보 알림시스템'을 운영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농가 등에 송부\*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.

\*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·H7형) 검출 시 문자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해 가금농가와 생산자단체에게 정보 제공

- 또한,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, 검출지점 반경 10km를 방역지역(야생조수류 예찰지역)으로 설정하여 21일 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농가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.

- (농가 방역관리) 가금농가 전체(전업농 4,843호)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농가별 취약요소\*와 현장 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한다.

\* 취약요소 : 과거 발생, 임대농가, 밀집사육단지, 철새도래지 인근 여부 등

- 특히, 방역 취약농가\*(473호)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월 1회 점검 등 별도 방역관리를 실시하며,

\* 오리농가중 방역 미흡농가, 산란계 밀집사육단지(11개소), 위험지역 소재 임대농가

-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진출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·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·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(월 1회→2회, 발생 시 매주)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.

- (사육제한·소독)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,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(휴지기)을 실시할 계획이다.

- 또한, 방역지역 내(반경 10km 이내) 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하고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2중으로 설치하며,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환복 후 출입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.

- ◆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, 구제역,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,

- 축산농가는 울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,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가축전염병 의심사례\*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\* (조류인플루엔자)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, 사료섭취 급감 등

\* (구제역) 거품섞인 침흘림, 콧구멍 주변의 궤양,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

\* (아프리카돼지열병) 고열 및 식욕부진, 혈변, 피부 점상출혈, 청색증, 폐사 등

※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: (국번없이) ☎ 1588 - 9060 / 4060